

## 11/30(수) 시편(4 권) 묵상 7

### 시편 95: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전반부(1-7절상)에는 매우 경쾌한 이미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7절하-11절)에서는 과거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시편 95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4번씩이나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히 3:7-11; 3:15; 4:3; 4:7). 1) 히 3:7-11,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2) 히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3) 히 4: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 히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 전반부(1-7절상)

먼저 1-2절을 보면, 시인은 회중들로 하여금 즐겁고 경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유합니다(1-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보면 기쁨과 감사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음으로 3-5절은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이 땅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지으시고 바다와 마른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즉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4절에서는 창조의 ‘수직적인 축’과 5절에서는 ‘수평적인 축’을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을 돌보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6-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그리고 우리를 양의 이미지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시편 여러 군데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시 23편, 74편, 78편, 80편, 100편, 요 10장).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시 78:52,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요 10:14-15,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한 분이시지만 양처럼 작은 존재인 우리까지도 친히 살피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 후반부(7절하-11절)

시인은 후반부에서 갑자기 광야의 기억을 회상시키면서 1인칭 화법으로 책망의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8절,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7절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그것을 그저 과거의 일로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와 이 세상의 유혹에 시험받고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이라는 삶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과 같이 작은 존재인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과거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은 목자가 양에게 하듯이 돌보시면서 무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영원한 구원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의 의미는 4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1)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2) 전쟁이 없는 것. 3)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4)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2-4번째는 모두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자국민들과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영상미디어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베트남 우석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